

안녕하세요?

산동초등학교 54회 졸업생 유남숙입니다.

산동초등학교 100주년 개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4년 전남 곡성군 의회 의원 당선

2016년 부의장 당선, 2018년 재선 당선,

곡성군 23년 만에 최초 여성의원 등원 부의장과 재선 곡성군 군의원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1920. 04. 01. 산동공립보통학교 개교 이후 100년이 넘도록

수 명의 학생들을 배출한 모교, 따뜻한 추억으로 청소년기를 풋풋하게 보내고 벚나무 아래에서 체육대회를 방금마치고 쉬고 있는 듯 많은 추억과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1973년 입학 코 흘적 거리며 손수건 가슴에 달고

고무신 신고 책보자기 책 허리에 두르고 등교했던 시절 청소년 어린이에겐 넓디넓은 운동장 한 바퀴 돌기는 힘겨워 지치던

체육시간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100주년 기념을 이야기하며

초등학교 6년 선생님 이야기, 산수기간 매 맞은 이야기, 체육시간 달기기 등 이야기꽃을 피우다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추억을 만들어준 모교를 생각합니다.

개교 100주년 거듭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준 선생님

선배, 동창, 후배님 건강과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들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동초등학교 제54회 졸업생

곡성군의회 (7대 8대) 의원 유남숙